신당 '공천혁명', 광주·전남 물갈이 대상 누가 될까

구태의연 의정활동 인사 등 7~8명

참여정부 핵심 요직 맡은 의원 포함

민주당 탈당 그룹도 포함될 가능성

대선 참패 후폭풍에 휘말린 대통합민주신당에서 '물갈이'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열린우리당 출신 일부 국회의원들이 소위 인적청산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어 지역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대통합민주신당의 김호진 쇄신위원장은 26일 당이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현역의원 50여 명은 공천 과정에서 물갈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당내 정풍운동 파장은 크게 확산될 전망이다.

26일 신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당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물갈이' 대상은 참여정부 시절 당·정·청과 국회에서 핵심 요직을 맡았던 일부 의원들과 강경 친노 성향 의원 그룹이 꼽히고 있다.

여기에 구태의연한 의정활동으로 정치적 경쟁력이 떨어지는 인사들도 내년 총선 공천 배제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참여정부에서 요직을 맡았던 광주지역 A 의원과 열린우리당 핵심 요직에 있었던 광주지역 B의원이 물갈이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여기에 광주지역 C의원, 전남지역 D의원 등 5~6명에 이르고 있는 광주·전남지역 친노 성향 의원들도 정치적 구호에만 치중했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물갈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열린우리당 분당 과정 등에서 노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결별한데다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즉, 친노 성향의 기준이 모호한데다 친노 진영으로 분류된다고 해서 모두 공천 배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열린우리당 출신 광주·전남지역 재선급 이상 의원들에 대한 시선도 그리 곱지 않다.

열린우리당의 분당과 신당 창당, 범여권 대통합 및 대선 과정에서 별다른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정치적 소신보다는 눈치보기 행보를 보였던 E 의원 등 민주당 탈당 그룹의 일부 초선 의원들의 이름도 물갈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지역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대통합민주신당이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광주·전남지역에서 최소한 5곳 이상의 지역구에 전략공천을 실시하는 등 대폭적인 물갈이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지역 모 의원은 "일부에서 열린우리당 출신 의원들이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며 물갈이를 거론하는데 정치인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며 "초선 의원들에게 삼선급 이상의 역할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신당, 인적 쇄신 '백가쟁명'

친노 책임론·물갈이 범위 등 계파별 의견 분분

대통합민주신당 내에 인적 쇄신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그 방향과 방법을 놓고 백가쟁명식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신당 의원들이 대부분 공감하는 부분은 '친노 책임론'과 대폭적인 '물갈이' 필요성. 신당 내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실패, 그리고 '탄돌이'(2003년 탄핵돌풍에 의해 아주 쉽게 당선된 국회의원)의 정치력 부재 등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대통합민주신당 최재천, 정성호, 문병호 의원(왼쪽부터)이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당 쇄신을 위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들 초선의원들은 27일부터 매일 국회에서 조찬회동을 갖고 당의 진로를 논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하지만, 그 범위와 방법을 놓고는 계파별, 또는 개인별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손학규 전 지사 캠프에서 대변인을 맡았던 우상호 의원은 26일 "지금 상황에서 지도부가 해산하면 사실상 당이 와해된다"며 전날 초선의원 18명이 주장한 현 지도부 총 사퇴론에 반대했다. 우 의원은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에 출연, "내부에서 질서 있게 이번 대선에 내려진 엄정한 심판을 어떻게 환골탈태에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서 차근차근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날 초선의원 성명에 이름을 올린 문병호 의원은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참여정부의 총리를 지냈거나 열린우리당의 당의장을 지낸 분, 원내대표나 장관 등이 18대 불출마를 포함한 백의종군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 거꾸로 가나

박상천 고흥·보성, 김민석 광주 남구 출마설

"호남지역 공천 혁명 통해 재기 발판" 역행

대선 참패의 충격에 빠진 민주당이 18대 총선을 앞두고 호남지역 공천 혁명을 통한 재기를 노리고 있는 가운데 박상천 대표의 고흥·보성 출마설과 김민석 당 쇄신위원장의 광주 남구 진출설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어 '공천 혁명'의 구호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26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당 내부에서는 박상천 대표가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지도부에서 한 발 물러난 뒤 고흥·보성 지역구에서 출마할 것이라는 설이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박상천 대표는 최근 광주지역 국회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정국 상황을 봐서 비례대표로 나설 수 있지만 민주당이 단 한 석의 의석이라도 더 필요하다면 고흥·보성에 출마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서울 영등포를 지역구로 15·16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김민석 민주당 쇄신위원장의 광주 남구 출마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의 쇄신이 절실한 상황에서 내년 총선 출마 여부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나타낸 뒤 "지난 대표 경선 및 대선 유세 과정에서 광주를 방문했는데 일부 인사들이 추대를 거론하며 내년 총선에서 광주 남구 진출을 권유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해 가능성을 남겨뒀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일각에서는 당 대표와 쇄신위원장의 광주·전남지역 출마설에 대해 불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8대 총선을 앞두고 과감한 '공천 혁명'을 실현,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당내의 분위기를 역행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박상천 대표의 경우, 민주당 재기를 위한 진정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불출마 선언'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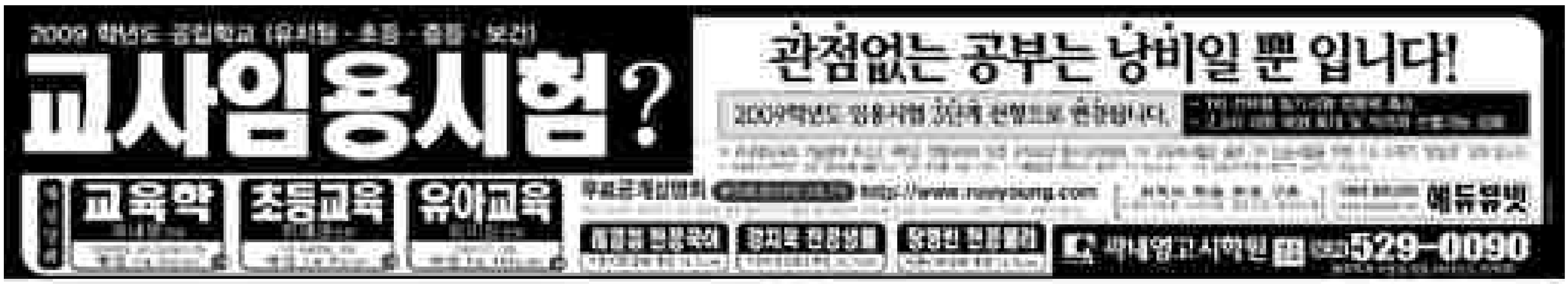
김주훈·한영·박재순·전석홍 물망에

■ 한 호남몫 비례대표 누가 거론되나

이명박 대통령을 만든 광주·전남권 인사들 중 '누가 내년 4월 제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벌써부터 하마평이 무성하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와 관련, 대선 기여도와 지역여론이 비례대표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선 과정에서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가' 그리고 '해 줄 만한 사람을 해 줬다'는 지역 여론이 선정 기준의 핵심이 될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물론 당에 대한 충성도 역시 중요한 고려 대상의 하나로 꼽힌다.

이 같은 기준을 감안하면 김주훈 전 조선대 총장(중앙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체육·청소년 분과)을 비롯, 한 영 광주시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한나라당 최고위원)과 이만의 광주시 공동선대위원장(전 환경부 차관), 그리고 안재홍 광주시 선대위 총괄본부장(광주시당 위원장)이 유력 인사로 분류되고 있다. 전남도 선대위에서는 전석홍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전 국가보훈처장관)과 이균범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전 전남도지사), 박재순 선대위 총괄본부장(전남도당 위원장) 등이 강력한 비례대표 후보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와 함께 이 당선자와 대학 동문이자 선거 초창기 호남지역에 MB의 씨앗을 뿌린 임동오 목포대 교수, 이 당선자의 외곽지원세력인 2007선진국민연대 광주·전남지부 수석 상임대표인 류수택 전 광주부시장 등도 자천타천으로 호남 몫 비례대표로 거론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많은 사람이 거론되고는 있지만 일부 인사는 법적인 문제가 있는데다, 뒤늦게 캠프에 참여한 사람도 적지 않아 실제 비례대표로 선정되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지역민들로부터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인물이 중앙에 진출, 지역민의 의사를 대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